

2030가구주 “살림살이 빠듯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따른 전세값 폭등 속 식비·주거비와 같은 필수 지출 늘어

20~30대 가구주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주거비와 같은 필수 지출이 늘면 가계의 여유 자금이 줄어들어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별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2만3000원,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29만1000원으로, 식비·주거비에만 총 61만40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가구주 소비지출이 257만70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3.8%가 필수 지출인 식비와 주거비로 묶여 있는 셈이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필수 지출 비중

은 40대(21.6%), 50대(23.0%)보다 높고 60세 이상 가구주(33.7%)보다는 낮았다. 또한 20~30대 가구주와 40~50대 가구주의 필수 지출 비중 격차가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식료품·주거비 지출 비중은 2008년 22.6%에서 2009년 22.4%, 2010년 22.3%로 점차 낮아졌다가 2012년 23.6%, 2015년 23.7%, 2016년 23.8%로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가 시작된 해인 2008년과 견주면 1.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반면 지난해 40대 가구주의 필수 지출 비중은 2008년과 비교해 0.2%포인트(21.8%→21.6%), 50대는 0.7%포인트

(23.7%→23.0%) 감소했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도 2008년과 비교해 0.4%포인트 늘긴 했지만 증가 폭은 39세 이하 가구주보다 작았다. 2030세대의 필수 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이 정체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별 평균 소득은 445만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7.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같은 기간 40대(35.2%), 50대(35.5%), 60세 이상(34.7%) 등 다른 연령대의 소득은 모두 30%대 상승률을 보였다. 벌어들인 돈이 크게 늘지 않으니 씀씀이 증가 폭도 작았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별 평균 소비 지출은 21.4% 늘어 40대(27.0%), 50

대(27.3%)보다 5.6~5.9%포인트 작았다. 식비·주거비가 비슷하게 늘더라도 39세 이하 가구주의 여유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40~50대와 비교해 자가 가구 비중이 작고 전월세 비율이 크다는 점도 20~30대의 삶이 더 팍팍해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하고 전셋값이 뛰면서 20~30대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여건이 좋지 않아 취업 연령이 지연돼 20~30대의 소득, 소비지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필수적인 식비, 주거비는 실제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20~30대 가구의 필수 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제일건설 창립 30주년 행사

장학금 전달식·공연·마술쇼 등 펼쳐

‘전북 제1의 주택건설명가’인 제일건설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31일 익산시 백제웨딩문화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1988년에 설립된 제일건설은 전북과 수도권, 충청지역에 3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해 왔다. 제일건설의 직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는 제일건설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영상과 직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 금관 5중주 공연, 마술쇼 등이 펼쳐졌다. 운영을 대표이사는 “제일건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지역 주민의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사회공헌활동과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며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등에 1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제일건설은 올해 30주년을 기념해 ‘행복동행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체 직원과 가족들이 릴레이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특별로 참여해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집을 수리해 주는 봉사활동을 연중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또 여러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시중은행 이어 제2금융권 집단대출도 한시적 중단

분양 시작한 건설사들 발등에 불 전전금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2금융권의 집단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에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은 물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중도금대출상품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2금융권이 집단대출을 중단한 것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총량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과 16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상위 15개 저축은행은 행장들을 15일에는 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했다. 이후 지난 27일 15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지난해 대비 한자릿수 내에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대한 비중이 높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고 이후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실시하더라도 비중을 줄인 상태”라며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잠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2분기 중에는 집단대출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CEO 등을 불러 집단대출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여파”라며 “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집단대출을 중단하면서 제도권 금융사에 대한 대출 총량 관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에 신경

쓰는 이유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그간의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금융권이 집단대출을 중단하면서 분양을 시작한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중은행 중도금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직접 보증까지 나선 건설사들의 경우 이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이후 사실상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이 집단대출의 마지막 보루였다”며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분양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남원농협, 손해보험 올스타 상 확정

‘올스타’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3년 연속 최우수사무소에게 주는 상으로, 남원농협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우수 사무소 선정돼 ‘올스타’ 상을 받게 됐다. 박기열 조합장은 “농촌지역으로 추진 여건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로 전 직원이 헌신체제가 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얻게 됐다”며 “조합원에게 힘

이 되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 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원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과 자연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사과, 배, 복숭아, 버 등을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을 홍보하고, 농협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보험료 절감에 힘쓰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23건 공개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3일부터 5일까지 전북 소재 재산 약 25억원 규모, 총 23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개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개물건에는 남원시 죽향동 소재 근린생활시설과 익산시 중앙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부안군 백산면 소재 공장 등이 있다. 공개 참여 시 입찰자 현황 등 관리

관계 분석에 유의 해야 하고 명도책 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개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개 입찰 결과는 6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얼리버드 항공권 예약 오픈

이스타항공이 1일부터 7일까지 8월 출발하는 항공권 특가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의 얼리버드 이벤트는 탑승기간 4개월 전 찾아오는 특가이벤트로 매달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정기 이벤트이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내선4개 노선의 경우 편도총액 최저운임 기준 김포-제주 2만9000원부터,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1만6,900원부터 제공된다. 인천 및 김포출발 국제선의 경우 편

도총액 최저운임 기준으로 인천-나리타(도쿄) 8만4,100원, 인천-간사이(오사카) 7만9,100원, 인천-후쿠오카 7만9,100원, 인천-오카나와 10만9,100원, 김포-송산(타이베이) 11만4,100원, 인천-타오위엔(타이베이) 10만4,100원, 인천-홍콩 11만4,100원, 인천-방콕 16만7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5만9,100원부터 이용가능하다. 탑승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예매는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 및 웹(WEB)에서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양식장 용수관리사업 현장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31일 해양수산부, 전북도, 부안군, 양식어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식장 용수관리사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은 해안·도서지역에 분포하는 청정한 해양심층수의 개발가능 적지를 조사해 양식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온이 14~16℃인 안정적인

지하해수의 일정하게 공급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지하해수 부존량 조사결과와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양식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의견수렴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양식사업과 관련한 정책수립 반영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